

2022.7.7. 소서호

<https://cyw.pe.kr> 햇벌같은이야기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인간의 지식은 자연 만물에 대한 ‘자연적 지식’과, 인간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이르는 ‘도덕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전혀 다른 영역의 지식이지만 두 가지를 다 배워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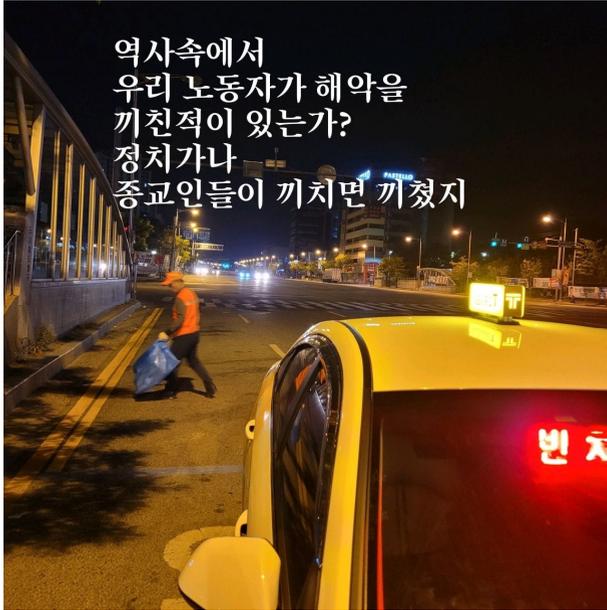
법(法)이라는 한문을 풀어보면 ‘물(水), 가다(去)’ 즉,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가는) 것입니다. 물은 어떤 경우에도 높은 곳에서 낮은 방향으로 흐르며 이것은 어디에서든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간혹 일시적으로 역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인간의 삶을 자연에 맞추어 순리대로 풀어보자는 ‘자연적 지식’의 기준을 법(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과학과 미디어의 발달로 ‘자연적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적 지식을 삶에 적용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도덕적 지식’은 초라할 정도로 빈약해졌습니다. 학교 교육도 ‘자연적 지식’에만 맞추어져 있고 공식 하나 더 외운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자연적 지식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덕적 지식’을 공부하지는 ‘인문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원래부터 ‘도덕적 지식’의 종교입니다. 공부만 많이 한 목회자들이 자꾸 ‘자연적 지식’으로 설교를 하니 기독교가 제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그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옛날 유행어로 마무리하자면 “먼저 인간이 되거라아~!”



♥먼저 인간이 되고 싶은 최용우 올립니다.



-오늘 본 페이스북에서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배한테 물어봅니다.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먹을까요?
-먹지 말아라.
그럼, 사과를 먹을까요?
-먹어라.
두 개 먹을까요?
-아니다.
한 개만 먹을까요?
-그래라.

그래서 초콜릿은 먹지 않고
사과를 그것도 한 개만 먹습니다.
뭐든지 이렇게만 먹는다면
속탈이 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만일 탈이 났다면
보श्य, 하늘이 뒤집어졌을 쥘니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33 이기적인 모습이

목회할 때 선거날만 되면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면사무소 투표장으로 모시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하기에 어느 때는 두 번 세 번 왕복하며 동네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전날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퇴근하면서 선거 독려 방송을 하라고 하여서 안내 방송을 끝내자 이장님이 경비실로 오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몇 명 있는데 투표장소가 멀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난 아냐, 난 아침에 바로 퇴근 해야 돼. 너무 피곤해.”

들은 척도 않고 선거 날 이른 아침, 인수인계를 끝내고 봉고차를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쉬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시간 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히 투표하고 왔을 텐데 그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다녀올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죄송함이 밀려왔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주인은 누구인가



토저 마이티 시리즈 14
A.W 토저 지음/이홍복 옮김
247쪽 10,800원 규장 2009

당신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더 순종하고 살지 않는가?
진짜 주인님께 빼앗은 주인의 왕관을
다시 돌려드려라!

1.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지고의 행복을 맛본다

성경은 '순종 없는 구원'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준엄하게 요구되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 없는 구원은 모순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권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할 권리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이라"(마11:30)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이다. 우리 각 사람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당신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순간부터 줄곧 당신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회심했는지를 자문해보라.

2.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먹으라

성경에는 역사적 연대가 나오지만, 그 내용이 시대에 뒤진 것은 결코 아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성경은 다른 시대, 다른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성경은 언제나 새로운

책이다. 성경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매일 새롭게 뜨는 태양처럼 신선하고, 청명한 밤이 지난 다음 풀잎에 맺힌 새벽이슬처럼 상쾌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놀라운 책이다.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3.세상의 헛된 소망에 집착하지 말고 산 소망이신 예수를 붙들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변화된 것에 대해 세상에 해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슬프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세상에 해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무덤에서 건짐받은 것을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 초자연적 은혜에 대한 강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말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표현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이런 현상이 일부 복음주의적 교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장차 두렵고 슬픈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이 이르면 거듭남의 기적에 의지하지 않고 기독교에 대한 정신적 동의에 의지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되겠는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고향이 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고향을 향한 즐거운 기대감이 없다면 그것은 그의 영적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만큼 당신은 당신의 소망을 신뢰할 수 있다. 장래에 대한 당신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4.스스로 의롭다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로 대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유익은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베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당신이 복을 받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망각하지 말라. 이제까지 당신 자신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자비가 풍성한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 당신 자신을 고치고 곧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은 당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물론 겸손히 회개하면서 말이다. 만일 자기가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5.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라

하나님은 거룩함의 문제를 지극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성경에 따르면,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성경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함은 긍정적이다. 거룩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초월적인 어떤 것, 즉 기이하고 신비롭고 외경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 거룩함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고(思考)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머무는 신비로운 성질이요, 그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는 어떤 것이다. 그런 것이 거룩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바로잡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당신의 영적 삶을 바로잡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에게 임하실 것이고, 당신은 놀랍고 신비로운 임재를 체험할 것이다.

6.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상속자로 지명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풍성한 것들을 받아서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앞에 놓은 것은 언제나 현재 우리에게 놓인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기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나님의 기업은 세 가지 방법으로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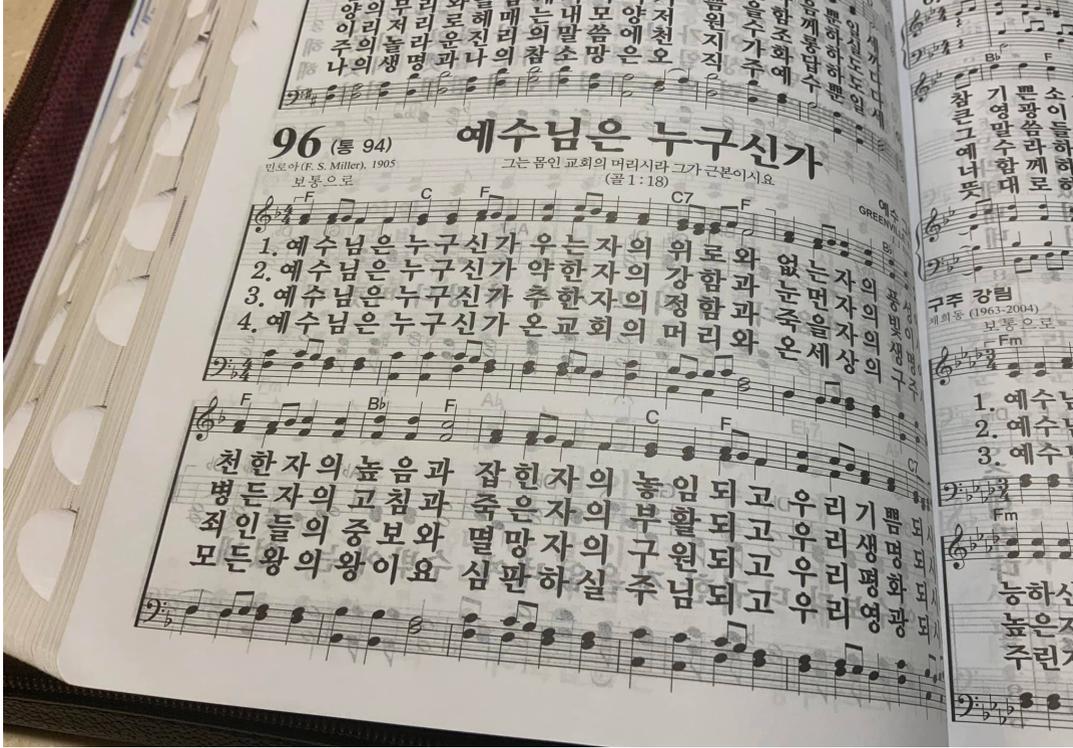
첫째,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즉 이 땅에 밭을 딛고 살아가는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총이 있다. 또한 영생을 주신다. 우리는 믿기 시작한 순간 이 생명을 소유한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충성심을 발휘하여 봉사하고 섬긴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 언급한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신다. 부요한 기업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자에게로 오는 복이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생긴다.

7.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왕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당신은 인간의 더러움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한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 돈을 소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을 통해 더러움으로부터 당신의 영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기업은 깨끗하고 때 묻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



러나온다. 예수께서 깨끗하시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을 깨끗하다. 주님은 거룩하고 해(害)가 없고 더럽지 않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분이시다. 우리는 부유하되 고상하게 부유한 것이다. 우리의 부는 변명이나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 부가 아니다. 우리의 부는 더러운 손을 거쳐 우리에게 주어진 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업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외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마땅하다.

8. 교만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겸손의 옷을 입으라

복종과 겸손이라는 성실한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의 제복과 장식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속받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겸손의 옷을 입은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다. 주님이 계신 곳은 바로 겸손의 자리이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떠올리자. 예수님은 매서운 채찍질에 살점이 뜯겨 나갔다. 주께 채찍을 휘두른 자는 천사장이 아니라 로마의 병사였다. 주께 욕설을 퍼부은 자들도 천사들이 아니라 주님의 신발에 묻은 먼지조차 털 자격이 없는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입이 더러운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겸손하라고 명하시면서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신다.(벧전5:6). 기억하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적절한 때가 아직 당신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시련의 불을 잘 견디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옷에서는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몸은 멀쩡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지금 풀무 불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무 일찍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는 상황에 딱 들어맞는 때이다.

9.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복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한 분과 한 책을 따라야 하는데, 그 한 분은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한 책은 성경이다. 성경은 당신의 옷을 진정한 매력의 근원으로 삼지 말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한다.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장식이다. 이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은히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으로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보석들보다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10.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께서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노력하지만, 내적 삶의 허리를 동이지는 않는다. 그들의 내적 삶은 누더기 같고 나사가 풀린 것 같다. 그들은 깊이 생각하여 진실을 인식한 다음 그것을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과 인격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회심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원한 가치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어떤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감정이나 사랑에 밀려 표류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항해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별을 놓쳐버린 삶을 산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별을 기준으로 살아 앞으로 항해해야 함에도 마음이 헤이해져서 하나님의 별을 놓쳐 버린다. 우리는 백일몽을 꾸는 그리스도인 몽상가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본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11.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한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성실하게 철저히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은 현재 자신에게 약속된 것을

포기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또 훗날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지금 달라고 조르는 죄도 범하지 않는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중압감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땅의 일들이 결코 이상적인 것이 아님을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며 세월을 보내지는 않는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느라 근심할 시간이 없다. 성도의 삶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의 비결이 성도의 약함에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높일 때 성도는 언제나 약해진다. 그러나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여 무릎을 꿇으면 강해진다. 두려움에 쫓겨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떨지만 믿음과 승리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12. 신랑을 맞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주께서 명백히 나타나시고, 빛처럼 비추시고, 자신을 보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시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주님은 과거에 나타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은 역시 사람으로서 오실 것이다. 물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 말이다. 사람들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눈, 즉 우리의 영의 이해력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주님을 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영적 거룩함과 도덕적 실천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면류관을 받을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고 순간순간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신부는 신랑을 맞기에 합당한 옷을 입기 원한다. 물론 신랑도 신부를 맞기에 합당한 옷을 입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 주님이 교회를 맞기에 합당한 옷을 입으셨듯이 말이다. 교회는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깨끗해야 한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재익 목사(일본 니아가타교회)

단소

단소를 불어 보고 싶어 하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좋은이도 밝은이도 잘도 부는구만
어째 내가 불면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는가
째게 불어도 살살 불어도
어째서 내가 불면 소리가 안 나난 말이야!

오! 드디어 첫 소리를 내는데 성공
선녀가 하늘을 날때 난다는
그 맑고 청아한 단소 소리
그런데 어째 내가 불면 ㅼ--옹!
요상한 방구 소리가 나는가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中



[덧글]

히영숙 /아마도 오랜 연습과 내공이 쌓여야 소리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수 /단소의 부는 소리 좋지요 단소에 대한 열정이 깊은 것 같네요

단소를 불다 보면 많이 늘지요 단소에 대한 의미가 깊네요

영력개발 /ㅎㅎ 그 방구소리 들어보고 싶네요^^

플라톤주의자들의 신을 보는 관점 비판



208. 신학에 대해서는 플라톤 학파 철학자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신학적 신학, 국가적 신학 이 두가지 신학은 참된 신은 만물을 창조하는 자, 진리를 비취주는 자, 축복을 내리는 자라는 플라톤학파 철학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신을 신체에 종속시키고 물질적인 것이 자연의 원질이라고 믿는 다른 철학자들도 위대한 신 하나님을 인정한 그 훌륭한 플라톤파 철학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209. 자연학이라 불리는 철학 부분에 대한 플라톤 학파의 견해

플라톤 학파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물체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물체적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좇았다. 그들은 또 어떤 가변적인 것도 최고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플라톤학파 철학자들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고, 또 하나님 자신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창조되신 분이 아님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순일성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은 물체나 생명, 이 둘 가운데 하나이고 생명은 물질보다 뛰어나며, 물질의 형체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생명의 형체는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들은 여겼다.

210. 플라톤학파 사람들은 다른 철학자보다 논리학이 뛰어나다

그들은 감각 능력을 감각에서 없애지 않고 또 능력 이상의 것을 감각에 돌리지도 않으며 감각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정신으로 인식하는 것과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을 구별한다. 그리고 그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한 정신의 빛이라고 주장한다. 이로 보아 그들은 다른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보다 훨씬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있다.

211. 플라톤학파 사람들은 도덕철학도 뛰어나다

그들은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란 '육체와 영혼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했다. 플라톤은 궁극적 선이란 '덕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계속)

여호와와의 통치

(The reign of Jehovah)



1. 여호와와의 통치

여호와와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시97:1-2) 이 세상은 긴 시각으로 보면 공의와 정의가 작동되는 세상입니다. 그 거대한 힘을 자랑하던 패권국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권력자들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금방 멸망할 것처럼 악(惡)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이 세상의 작동 원리입니다.

‘여호와와의 통치’라고 하면 뭔가 무서울 것 같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와의 통치’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통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입니다. ‘여호와와의 통치’가 주제인 시편 97편은 기뻐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기뻐하라는 말로 끝납니다.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섯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기쁘다’고 느끼는 감정은 사실은 ‘기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 기분이 좋다가도 누군가 나와 똑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것만 봐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호와와의 통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존재론적 능력으로서의 ‘기쁨’을 줍니다.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의 선물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기분을 따라다니지 않고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는 ‘성령 충만’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2. 여호와와의 통치를 거부하면

여호와와의 통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이 사방을 불태워 버린다. 번개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밀납같이 녹여버린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한다.’(시97:3-9) 여호와와의 통치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여호와와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호와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즉 그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공연히 겹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와의 능력이 화산폭발처럼, 그리고 번개처럼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는 무시무시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은 없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자가 자기가 만든 인간을 지옥에 보내 고통을 받게 하는가?”하고 따졌습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것에 지쳐서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궁금하다면 이미 지난 2천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논문과 책으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으니 그냥 알아서 찾아 읽어보시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여호와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널리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따르겠다고 하고 안 따르는 아들과, 안 따르겠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따르는 아들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요?”하고 물으셨습니다.(마21:28-32)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와의 통치에서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들이 더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3. 여호와에게 순종하는 삶

여호와와의 통치를 받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시97:10-12) 여호와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이제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와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10:9)라고 하셨습니다.

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요 5:30)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것과 수난당하신 모든 것에 대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10:18)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순종’이고 이 순종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려면 먼저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다니며 읽은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으라고 하면 다른 이유 달지 말고 읽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많은 말씀을 다 적용하려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선 날마다 말씀 한 절씩만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삶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데도다.”(시97:11)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려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분’을 따라다니지 않고 마음을 정직하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기분’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분과 기쁨이 글자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중에 ‘소요리문답’을 배웁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인간의 근본 목적은 무엇이니?”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로 물을 넘치도록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듯,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통해 삶의 의미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랴”라고 합니다.(느8:10) 돈을 의지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한순간에 배신을 당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면 그 끝은 허무와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방파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는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라고 했습

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삶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시97:7) 경배란 ①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가득찬 성도가 ②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③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④하나님을 합당하게 높여드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사건에 처음으로 '경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경배(敬拜)는 2e+16입니다. '경'은 1뒤에 동그라미가 16개 있고 이것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 '배'이니, 경배는 인간의 상상 밖에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경배'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적인 영시며 경배보다 경배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경배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으로 너무 작고 옹졸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진 경배의 한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요4:23).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의 힘과 지혜를 얻고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입니다.

6.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삶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시97:10)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악은 절대로 같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죽게 하심으로 악(죄)을 차단 하셨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의인을 위해 여호와께서 빛과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여 지켜야 될 율법을 찾아보았더니 '하라'는 긍정적인 율법

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뼈마디가 모두 248개인데 '하라'는 율법 248개를 다 지키면 뼈마디가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일년이 365일인데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개를 잘 지키면 1년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큰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신약에서는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친구를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7.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삶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시97:12) 스펀전은 "반딧불을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감사하면 예수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감사 좀 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하고 군인처럼 명령합니다. 명령 불복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만약 전쟁중이라면 상관이 총을 쏘서 사살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 만큼 엄격한 것입니다.

감사는 I(아이)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로 항상 '나는' '내가' '제가' 하고 아이형 언어로 해야 합니다. 내가 빠진 감사는 대형 쇼핑센터 문을 통과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녹음된 목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동사형입니다. '동사'는 움직이지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서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뛰어가다, 노래하다 등등 듣기만 해도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동사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동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감사했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입니다. ©최용우

*2022.5.29 들꽃교회 주일예배



민들레 (사진:최용우)

민들레

무엇이든 사물을 3분만 유심히 바라보면 그 사물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라는 아무개 목사님의 글을 읽고 크게 공감하면서 정말 그런지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

우리 집 화분에 뿌리를 박고 해마다 '흰' 꽃을 피우는 흰민들레 포자 하나가 며칠째 그대로 붙어 있다. 다른 씨앗들은 벌써 다 날아갔는데 왜 하나만 그대로 붙어있는지 모르겠다.

“너는 왜 날아가지 않고 그냥 남아 있는 거니?” 한번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민들레 포자가 나에게 말을... 말이 없다. 몇 번을 더 물어보아도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고 꿀먹은 민들레.

정말 3분만 유심히 바라보면 말을 걸어온다는 게 맞나? 음... 아무개 목사님 말이니 맞을텐데, 아마도 저 민들레는... 말을 못하는 민들레인가 봐. 그냥 나 혼자 중얼거린다.

갑자기

“여보, 예매 마치고 서울 올라가자.”

“엥? 갑자기 서울에?...”

“밝은이네 김치가 없네. 가서 만들어 주고 오게”

그렇게 뜬금없이 오전 예매를 마치자마자 냉장고 털어서 스티로폼 박스 두 개 반찬으로 꽉 채우고 쌀도 한 가마니 차에 싣고 서울 올라갔다. 내일이 현충일 쉬는 날이라 가능한 일이다.

서울까지 3시간 걸렸다. 갑작스런 엄마 아빠의 방문에 딸들이 정말 좋아한다.

좋은이네 냉장고가 갑자기 꽉 찼다. 저녁을 먹고 새빛둥둥 한강시민공원에 밤나들이를 나갔다. 최근 잠수교에 조명 분수를 설치해서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원래는 한강 공원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집에 와 결국 치킨을 시켜 먹고 잤다.



건성으로 보지 말고

“와아... 산이 이제 진한 녹색 한 가지 색으로 변해 버렸네.”

차창으로 펼쳐지는 산을 바라보던 아내가 한마디 하신다. 벌써 들판도 땅 힘을 받은 모들이 녹색으로 통일! 어디를 봐도 안구 정화가 확실히 되는 녹색 세상! 눈이 맑아지는 것 같다.

잘못된 현대 문명의 확실한 해독제는 자연이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 따라 흘러가는 구름과 반짝이는 별과 영롱한 이슬... 그리고 길가에 피어나는 수많은 들꽃과 나무와 지저귀는 새들... 이 없다면 인간들은 숨이 막혀 살 수 없을 것이다.

빌딩의 대리석 벽의 깨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광대나물’ 꽃꽂이를 보라. 어떻게 저 틈새기에 씨앗이 들어갔을까? 그리고 흠도 없는 곳에 도대체 뿌리를 어디에 내린 것일까?

자연은 유심히 바라보면 정말 경이롭고 신비하다.



놀래라

아내와 함께 추어탕으로 저녁을 먹고 용수천변 걷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멀리 모내기가 끝난 논 가운데 뭐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아내가 “여보, 저게 뭐지? 사람 아니야?” 라고 했다.

핸드폰 줌 기능으로 사진을 찍어 당겨 보아도 물체의 정체는 확실하지는 않았다. 뭐지? 진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건가? 그러면 얼른 119에 신고를 하든지 내려가 봐야 하는데.

“사람이 저기에 쓰러져 있을 리 없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눈에 쓰러져 있는 물체가 궁금했다.

오늘은 일부러 그쪽으로 운동을 나가서 아래로 내려가 보았다. 남자 ‘허수아비’가 쓰러져 있었다. 건너편 논둑에는 여자 허수아비도 서 있었다. 참 뜬금없다.



엄마 때문에

언젠가 엄청나게 차가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작팔 밝은이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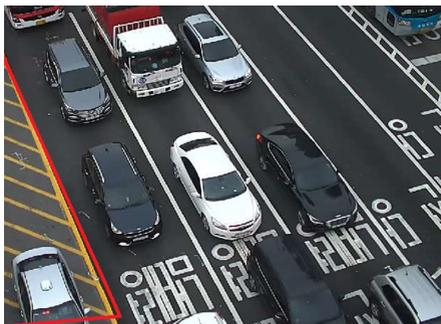
“아빠, 고속도로에는 신호등도 없는데 왜 차가 막혀요?”

“응. 엄마 때문에 막히는 거여.”

원칙주의자인 아내는 내가 운전할 때마다 다른 차 무시하고 정해진 속도로만 가라고 잔소리를 해댄다. 그냥 주무시라고 해도 기어코 졸음을 견디며 눈을 부릅뜨고 옆에서 나를 감시한다.

나는 “운전은 흐름을 타야 돼. 앞차가 빨리 가면 빨리 따라가고 천천히 가면 속도를 늦추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겁니다.”

민약 어떤 차가 규정 속도를 지킨다고 속도를 늦추면 뒤따르는 다른 차들이 전부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나비효과로 뒤로 갈수록 속도가 늦어진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유령 체증’이라고 하는 차 막힘이 생기는 것이다. 내 말이 아니고 전문가의 말이다.



검은 고양이



운동을 하는데 농협주유소 고가도로 밑에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뭔가? 호기심에 가보니 어제까지도 없었던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고양이 집도 있고 사료가 비닐봉투 짜 놓여 있었다. 고양이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젖이 붙어 있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얼굴을 부비면서 친한 척을 하는 것이 아마도 어느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같은데 여기에서 버리고 간 것 같다. 그래도 고양이 집이랑 밥도 잔뜩 놓고 간 것을 보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도 그곳을 지나 운동을 하는데 고양이는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아양을 떠든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세상에 나오면 살기 힘들텐데...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치열하게 싸워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데...

커피 내리는 시간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커피를 내린다. 주로 오전에 내린다. 코스트코에서 사 온 '커클랜드 시그니처 콜롬비안 커피' 한 통 1.36kg이면 매일 한 번씩 약 3개월 동안 내릴 수 있다.

이 커피는 코스트코의 대표적인 '미끼상품'(Loss Leader)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통씩 밖에 못산다. 미끼상품은 어느 특정한 제품의 가격을 확 낮춰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다른 것도 사게 만드는 마케팅 전략의 한가지이다. 그렇지만 나는 딱 이 커피만 사 가지고 나온다.^^

12g짜리 계량컵으로 1컵을 내리면 500ml짜리 백다방 텀블러에 반이 찬다. 물은 한 번만 내린다.(두 번 내리면 너무 써진다.) 그리고 물을 더 부어서 500ml로 희석시키면 딱 두잔 나온다. 그래서 하루에 커피를 딱 두 잔 마신다.

한 잔은 내려서 바로 마시고, 나머지는 다음날 새벽에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를 발송하기 전에 마신다.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신다.(새벽부터 커피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매일 똑같이 하는 나의 루틴(rutin)이다.

5분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계량기 교체하러 나왔습니다. 한 5분 정도 단전이 될 겁니다.” 한전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한 참 오전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다가 얼른 멈추고 파일들을 다 안전하게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다. 잠시 후에 전기가 나갔다.

단 5분이지만 전기가 나가버리니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 두 사람이 달라붙어 계량기를 열심히 새로 교체하고 있었다.

“요건 10년, 요건 8년, 요런 모델은 5년마다 교체합니다. 이렇게 계량기 교체하러 다니다 보면 5년 전에 내가 교체한 계량기를 또 교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죠.” 작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한다. 나는 옆에서 “예, 예 그렇죠.” 하면서 공감의 리액션을 했다.



새끼 고양이

농협주유소 고가도로 밑에 지나갈 때마다 고양이가 안 보이면 습관처럼 고양이 집 안을 들여다 본다.

앗! 그런데 오늘은 못 보던 새끼 고양이가 있다! 풀숲을 살펴보니 세... 세 마리다! 새끼를 낳아서 숨겨두고 어미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옆에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더니 호기심 많은 새끼 한 마리가 살금살금 나와서 엄마의 꼬리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두 달 정도는 된 새끼이다. 아마도 주인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자 감당이 안 되어서 그냥 밖에 내놓은 것 같다.

고가도로 밑은 여기저기에서 차가 많이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양이에게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섬’ 같은 곳이다. 그 위험한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새끼들이 좀 더 자라면 가만 안 있을텐데.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560회 오봉산(262m)조치원

집에서 오후 4시 넘어 출발하여 오봉산 주차장에 도착하니 5시이다. 집에서 너무 늦게 나왔다. 그래서 해 넘어가기 전에 내려오려면 1시간 30분 안에 정상 찍어야 한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뛰었다.



트래킹 기록으로 이동거리 6.55km 이 동시간 01:19:06 한 시간에 약 5km 달린 셈이다. 515칼로리가 소모되었다고 나온다. 그런데 주차장에 칼로리 계산 알림판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약 2,000kcal 라고 표시되어 있다. 음, 진짜 힘들었는데 짜장면 한 젓가락 칼로리 밖에 소모되지 않았다니...

지방산거일 공휴일이라 산행을 온 사람들이 많았다. 무장공비처럼 옆을 쭉 지나 쳐가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란다. 오랜만에 속도를 좀 내 봤더니 몸이 가벼워졌다. (202.6.1)

▲제561회 비학산245(일출봉252m)

비학산 산길에 빨간 열매가 빼곡히 달린 '접골목'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말오줌나무라고도 하고 '먹으면 뼈가 붙는다' 하여 접골목이라고도 하는데, 유럽에서는 엘더(Elder서양떡충나무)라고 한다. 예수가 엘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전해지며,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엘더 나무에 목을 땀다는 설도 있다.

유럽 엘더 나무는 크게 자란다고 한다.(2022.6.8.)



▲제562회 비학산246(일출봉252m) 2022.6.14

▲제563회 비학산247(일출봉252m) 2022.6.21

▲제564회 비학산248(일출봉252m) 2022.6.28.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소서 - 풀 세상

소서(小暑)는 ‘작은 더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위보다는 ‘장마’가 먼저 와서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가 높기도 합니다. 소서 전후로는 1년 중 풀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입니다. ‘며칠만 풀을 뽑지 않으면 풀밭에 호랑이가 새끼를 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마13:29) 시골 사람들은 ‘가라지’가 뭔지도 모릅니다. ‘가라지’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냥 ‘잡초’나 ‘풀로 번역했으면 훨씬 실감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공주에 밥 먹으러 갔다가 폐수만 흐르던 제민천이 완전 새롭게 바뀐 것을 보고 제민천을 따라 건다가 곳곳에 그려진 벽화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벽화 그리기 붐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민천변 벽화는 원래 있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그림만 살짝 얹은 벽화가 많았습니다. 담벼락의 벌어진 금을 이용하여 등산하는 모습을 재치 있게 그린 벽화가 눈에 들어와 이번 달 표지로 사용합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웃긴일기-은근히 배꼽 잡는>(일기시리즈13권)
-396쪽(올컬러) 23800원 2022.6.29.발행!

58권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저녁밥3> 398쪽 17,000원 2022.5.27

15권-24권<주보자료집1-10권>(재판) 각권 220쪽(컬러) 14000원

57 <겨울묵상> -218쪽 13,900원(올컬러) -12월27일 발행!

56 <들꽃편지2권 썬부쟁이꽃> 504쪽 21,200원 -11월30일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53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2.6월 재정결산

2022년 6월(1-30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정옥 이진우 장기갑 정호숙 조운학 조정옥 주명혁 지경희 최경자 최상복
한주환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총 27분이 1,0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 <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2.7.7일 현재 7273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자자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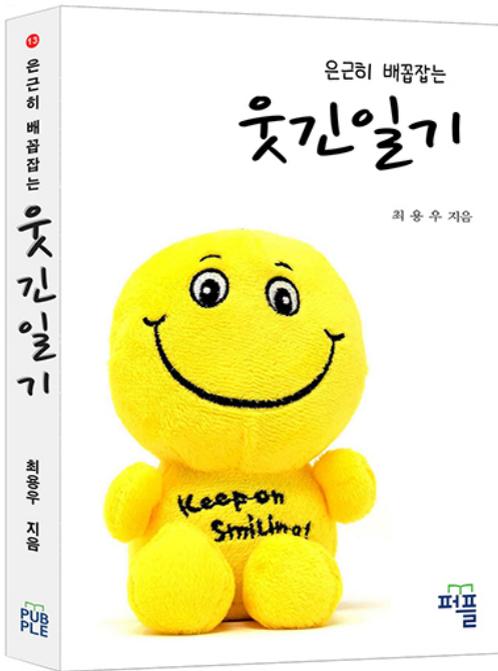
③도서출판 -그동안 59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
하고 있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새로 나온 책

최용우 일기 시리즈13
23,800원 396쪽(컬러) 퍼플

코로나(Corona)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사람의 몸을 거대한 축구장이고 한다면 그 운동장 한 가운데 사과 한 개를 떨어뜨려 놓은 정도로 작은 세균입니다. 그 작은 세균이 지구를 마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으스대던 인간들의 처지가 참 웃긴 세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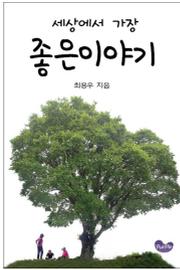
특히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주일성수’를 완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가톨릭이나 이슬람도 수백만명씩 모이던 바티칸이나 메카의 성지순례를 완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절들도 산문을 닫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신(神)들도 코로나는 무서운 것 아닐까요? 생각해 보면 참 웃긴 세상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인간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쏘아서 지구상에 있는 천문학적 인 돈을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인간 위에 코로나, 코로나 위에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참 웃긴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한해를 그래도 허허실실 웃으면서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살았네요. 그 생생한 현장의 기록들을 또한 권의 책으로 엮어냅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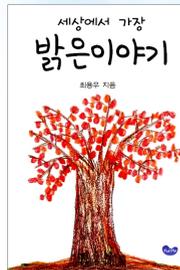
❀ 최용우 저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던 햇별같은이야기 아침편지 1호~1019호까지 4년 분량 1019편의 좋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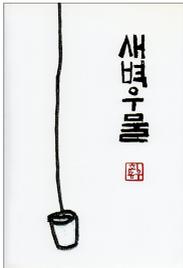
24,000원 722쪽 펴플



세상에서 가장 밝은 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던 햇별같은이야기 아침편지 1020호~1979호까지 5년분 960편 밝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23,900원 720쪽 펴플



새벽우물

얼어붙은 내 영혼 내면의 바다를 깨부수는 한 자루 도끼와 같은 책! 충충히 맑은 물 채운 새벽우물! 햇별 1980호부터 3501호까지 1422편 단행본 5권 분량을 한권으로 크게 묶었습니다.

28,700원 878쪽 펴플



플러스 예화

두란노서원에서 매일 펴내는 큐티 묵상집 월간<생명의삶+>(묵상과적용)코너에 17개월 동안 썼던 예화 452편을 모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고품격 inside 예화집입니다.

17,000원 490쪽



① 맛있는 주보+파일

매주 주보 만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보고 나서 모아두고 싶을 만큼 내용이 알차고 보기 좋고 영양가 만점인 맛있는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펴플



② 맛있는 주보+파일

주보는 교회의 얼굴이요 이미지입니다. 주보는 교회의 문화요 거울이요 역사를 담은 그릇입니다. 멋지고 근사한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펴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쑈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42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